

작가 멘티와 멘토의 교감

예술의거리 융·복합 레지던스 '뉴폼스' 성과보고전 13일까지 무용·사운드·영상·사진 등 협업작품 선포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융·복합 레지던스 '뉴폼스'에서 올해의 성과보고전 '교감II-멘티와 멘토'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

'뉴폼스'는 융·복합 예술 창작 공간으로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를 주축으로 무용, 사운드, 사진, 영상, 기획의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협업해 왔다.

올해는 기성작가를 멘토로 지정해 융·복합 신진작가들이 멘티가 되어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도출받고 창작, 교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멘토는 안무 조가영, 사진·영상 이병순, 사운드 허동혁 작가가, 멘티는 무용 조성미, 사운드 오석빈, 사진 조규민 작가가 참여했다.

단기작가 문화교육 기획 김정선 작가는 열정적인 교류와 지원을 통해 융·복합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며 일 년 동안 각 예술장르에서 그 기량을 펼쳤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마스터즈대회 성공기원 공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기념 공연, 그린발레단 실낙원 공연, 차세

대 작가전 트리니티VII 공연 등의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창작과 광주·전남 지역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다양한 융복합 예술 맞춤형 진로체험, 지역 어린이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융복합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규민 사진작가는 올해 공연에서 느낀 생생한 감동과 전율을 한 컷, 한 컷으로 표현한 '뉴폼스' 작가들의 융·복합 공연 촬영물들을 전시한다.

이병순 사진·영상 작가는 갯벌과 그물, 양식장을 '터전II'이라는 주제로 사진에 담아냈다. 드론을 이용해 바다생물의 터전인 갯벌과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양식장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을 전시한다.

오석빈 사운드 작가의 인터랙티브 작업 영상물과 사운드 인터랙티브 체험, 허동혁 사운드 작가의 런치패드 체험, 전자악기인 모듈러 신디사이저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연수 기자



조가영 작 '영상으로 빛어낸 몸'



이병순 작 '터전II'

클라리넷 독주로 선 보이는 '아리아'

조성호 리사이틀 11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목관악기로 절제·서정미 배가된 오페라 새롭게 선사

국내 최정상 클라리넷리스트 중 유일한 셀마(Selmar)악기 아티스트이자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약하고 있는 클라리넷리스트 조성호가 흥미로운 레퍼토리의 리사이틀 무대를 광주를 찾는다.

1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아리아(Aria)'는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라는 소재를 통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지닌 넓은 스펙트럼과 솔로악기로서의 저력을 선보이는 무대다. 부제인 '아리아'는 오페라 주역들이 부르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독창곡을 의미하며

기악독주 무대로는 다소 신선한 공감을 모으고 있다.

조성호는 매 리사이틀마다 다양한 시대·장르의 곡들에 도전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오페라'를 주제로 클라리넷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루이지 바시, 도나토 로브렐리오, 카를로 델라 자코마의 작품을 들려줄 예정이다. 1800년대 베르디, 푸치니 등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페라의 선율을 주제로 삼은 정통 클라리넷 프로그램 작품들이다.

조성호는 2017년 일본 최고의 관현악인,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선발되며 세계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쿄필은 연간 다수의 오페라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로 유명하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그는 목관 악기를

통해 절제미와 서정미가 배가된 오페라를 선보인다. 화려한 극예술 오페라가 지닌 모든 장식을 걷어내고, 오페라가 지닌 드라마를 독주 무대로 그려내며 깊은 음악적 몰입의 순간을 선사한다.

그는 성악가들의 음성으로 관객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아리아를 클라리넷 독주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대중들에게 제시한다. 가사라는 언어적 매체를 통하는 오페라와 달리, 오로지 악기의 소리를 빌어 대서사가 지닌 감정적 스펙트럼을 표현해내는 음악적 도전이 나선다.

그는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스토리와 감정선들을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온전히 전달하고 싶다. 오페라의 스토리를 모르던 관객 분들도 나의 연주를 통해 오페라 선율이 지닌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한다"며 리사이틀에 대한 포부와 기대감을 밝혔다.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지난 브람스 전곡 연주에 이어 함께 한다. /이보람 기자



국립광주박물관이 송년 문화공연으로 어린이 공연 2편과 어른을 위한 연극 1편을 선보인다. 사진은 연극 '행오버'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서 '송년 문화공연'

어린이 뮤지컬 2편·연극 1편 사전예약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연말을 맞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송년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어린이 공연 2편과 어른들을 위한 연극 1편을 선보인다.

오는 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는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을 진행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짜릿한 반전을 선사하는 코믹추리극 '행오버'를 21일 오후 2시·6시에 진행한다. 대학로 연극으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이 작품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춰간 등장인물들의 사연과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스릴러다.

마지막으로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3·5시에는 어린이 매직쇼 '해리와 마법 기사단'이 관객과 만난다. 마술과 뮤지컬이 합쳐진 공연으로 아들의 마법사로부터 주인공과 친구들이 마법학교를 지켜내는 내용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사전예약하면 된다. /이보람 기자

'2019 중딩영화제' 응모하세요

내일까지 자유 주제 3~20분 영상·라디오 작품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6일까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9 중딩영화제'의 참여 작품을 공모한다.

'중딩영화제'는 미디어 꿈나무를 격려하기 위해 5회째 진행돼오고 있다. 매년 200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는 등 반응이 뜨겁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학교미디어교육의 사례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중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 유일 중학생 콘텐츠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 주제로 14~16세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3~20분 분량의 동영상이나 라디오 작품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신청서와 파일을 이메일(gjc@kcm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대상에 방송통신위원장상(1팀), 최우수상에 광주시교육감상(2팀)과 전남도교육감상(2팀), 우수상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4팀), 장려상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상(4팀)과 부상이 수여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는 "중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공모·심사하는 만큼 기술적 완성도 보다 중학생의 시선, 창의력, 스토리텔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결과와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유튜브 특강, 축하공연, 시상식, 수상상 촬영회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시스템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